

# 10개국서 162건 수출상담... 137억 규모 계약 체결

##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

美 워터리아 등 글로벌 18개사 참여 MOU 16건, 기밀유지협약 1건 체결  
환경부 “물 분야 300억 수출 목표”

이달 열린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국내 기업들이 약 137억원 상당의 수출을 달성했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1~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석한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이 총 137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지난 2002년 시작, 올해 20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워터리아와 중국 베이징 월신 그린 테크놀로지 등 10개국 바이어(Buyer) 18개사가 참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세계물의 날 기념식을 마친후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를 찾아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시스

박람회에서는 총 162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업무협약(MOU) 16건, 기업 간 기밀유지협약(NDA) 1건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수출 본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8개국 총 19건이다. 케냐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대만·인도네시아 각 2건, 태국 1건이다. 규모로는 약 137억원(1055만 달러)에 달한다.

환경부는 미국수도협회(AWWA)와

미국물환경연맹(WEF), 대만물협회(CTWWA) 등 해외 상하수도 관련 단체와 해당 국가에 국내 물기업이 진출하면 정보 제공과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물산업 분야 수출액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다음 달부터 ‘물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체결된 협약이 안정적으로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물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올해 물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동반위-풀무원식품

### 210억 상생 프로그램 운영

풀무원식품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풀무원식품과 지난 28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협력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풀무원은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2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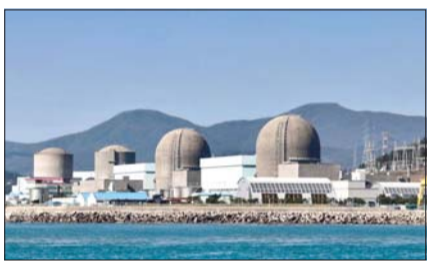
이는 협력 중소기업 임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ESG경영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변동분 반영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고리2호기, 내달 운영허가 만료... 일시 가동 중단

## 산자부 “탈원전 정책에 철차 지연” 한수원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뉴스시스

원전 고리2호기가 상업운전 이후 처음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 ‘탈 원전’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이 지연됐고, 내달 8일 처음으로 운영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재가동할 방침이다. 재가동 시점은 빨라야 2025년 6월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원전을 대체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경우 연간 약 1조5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내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고 밝혔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정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되

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감안 시, 허가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돼야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에만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등과 설비개선 등 계속운전 절차는 통상 약 3.5년이 걸린다.

그러나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도 수명만료 5~2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했었다.

650메가와트(MW) 규모 고리 2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5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며 “고원가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약 1조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잠정) 재가동한다는 목표다. 한수원은 “철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이노비즈협-대한상사중재원

### 분쟁 중재 서비스 고도화

이노비즈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잡고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 예방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을 위한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한국공항공사

###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업무 추진의 투명·청렴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2023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주요사업 운영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회계·UAM 분야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해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공사 핵심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소 등 공항현장 동행점검을 실시했다.

/허정윤 기자

## 한국공항공사, ‘AI X-ray’ 판로개척 나서

세계 보안엑스포 참가... 솔루션 소개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세계 보안 엑스포’에 ㈜답노이드, ㈜씨엔아이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X-ray 검색 장비를 전시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세계 보안 엑스포는 물리보안과 정보보호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통합 보안 전시회로 올해

에는 10개국 355개 기업이 참가한다.

공사가 이번에 전시하는 AI X-ray 검색 장비는 국내 1호 엑스선 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획득한 씨엔아이의 X-ray에 공사와 답노이드가 공동 개발한 AI X-ray 자동판독 솔루션을 탑재한 제품이다. AI X-ray 검색 장비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탐지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해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육안판독 지원을 통한 인적오류 최소화로 보안검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가치 259조 달해”

국민 한사람 당 연간 499만원 혜택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원에 이르고 국민 한사람 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산림에서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한다.

평가항목 12개를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조6000억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산림경관제공기능 31조8000억 원(12.3%), 산림휴양기능 28조4000억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조2000억원(5.9%) 순으로 평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美, 中 하이테크비전 자회사 5곳도 제재...인권침해 혐의
- ▲ “日, G7에 자동차 탄소배출 2035년까지 50% 감축 제안”



- ▲ 바이든 지지율 40%...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 /사진 뉴시스
- ▲ 中허리띠 부총리 “외자 유치·활용 더 강화할 것”



- ▲ 美 전기차 업체 루시드, 실적 부진에 직원 1300명 해고
- ▲ 日기시다 총리 “중의원 해산, 지금 생각안해” /사진 뉴시스